

歐洲 家電業界의 再編成과 日本의 對應

1. 再編成의 動向

歐洲에서는 최근 家電業界의 재편성에 대한 움직임이 급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業界 재편성의 動向을 살펴 보기 위해 먼저 主要 메이커들을 概觀한 다음 그 實態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歐洲의 主要 家電 메이커

家電메이커를 歐洲 主要 4 개국, 즉 英國,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해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英國……企業別의 勢力관계를 보기 위해 代表的인 家電제품인 컬러TV의 英國에 있어서의 市場占有율을 보면 1位 Thorn EMI(22%) 2位 Philips(15%)이며 3位가 Pye(Philips系)(10%)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1982년 Euromonitor에 의한 資料이다.

여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英國에 있어서의 家電제품의 主要 自國메이커로서의 Thorn EMI는 컬러TV외에도 黑白TV, Teletext, View Data用 TV, VTR, 同 關連기기, 라디오, 테이프 레코더, HiFi 關連기기 등을 생산하는 종합 家電메이커이다.

이밖에 自國 家電메이커로서는 Fidelity, Rediffusion, Robert Radio 등이 있다.

Thorn EMI를 제외하면 英國의 有力家電메이커는 네델란드(Philips) 및 日本資本의 系列기업이 많다는 것이 英國家電業界의 커다란 특색이다.

② 西獨……西獨의 家電業界의 上位메이커로는 75세의 Max Grundig가 거느리고 있는 Grundig, TFR(Telefunken Fernseh Rundfunk GmbH), Blaupunkt, SABA, Nordmende, Dual, Loewe Opta 그리고 Philips 등이 있다.

이들 기업가운데서 西獨資本 100%의 메이커로는 Blaupunkt(Bosch, Siemens가 25%, Robert Bosch 75%出資하고 있다)가 認定받고 있는데 불과하다.

Grundig 및 Loewe Opta는 Philips의 資本系列下에 있어 이 2개社를 제외하고는 프랑스의 Thomson의 資本系列下에 있기 때문이다.

西獨家電業界에 있어서의 西獨資本의 위치는 급속히 저하하고 있어 同業界는 네델란드 Philips 및 프랑스의 Thomson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고 있다는 것이 同國業界의 커다란 특색이다.

③ 프랑스……代表的인 自國 家電메이커로는 Thomson이 있다.

Thomson은 家電製品외에도 多國籍 종합電子메이커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赤字經營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Thomson이외의 主要메이커로는 Grundig(西獨資本), Philips(네델란드資本), Radio Technique(네델란드 Philips系), Blaupunkt(西獨資本) 등이 있다.

④ 이탈리아……同國을 대표하는 家電메이커로는 첫째로 Philips, 둘째로 Zanussi Electronica, 셋째 Grundig Electronica, 그리고 IRT

(AEG-Telefunken의 子會社)가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의 自國資本의 主要메이커로는 Zanussi가 존재할 정도이다.

Zanussi는 종합 家電메이커이나 최근에는赤字經營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Philips 및 Thomson의 2大 資本과의 제휴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Zanussi이외의 메이커로는 Autovox, Voxon, Emerson, Elcic 등의 기업이 있다.

이상 概觀한 바와 같이 歐洲家電業界에 있어서는 네델란드를 본거지로 하는 多國籍기업 Philips와 프랑스를 본거지로 하는 Thomson의 2大 資本이 支配的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英國의 調査會社인 Mackintosh社가 歐洲 家電메이커 10개社를 대상으로한 順位에서 ('83. 8. 3 VWD Electro)에 있어서의 賣出額 第1位에 Philips, 그리고 3位에 Thomson (第2位는 Siemens이지만 家電메이커가 아니므로 Thomson이 實質적으로 2位에 해당)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歐洲 家電業界 再編成의 動向

歐洲 家電業界는 네델란드 Philips 및 프랑스 Thomson의 2大勢力을 중심으로 재편성이 급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실태를 資本系列化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Philips의 資本系列化 動向

Philips가 本社를 네델란드 Eindhoven에 두고 多國籍기업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Philips의 歐洲에 있어서의 資本系列化의 主要動向을 보면 1979년의 西獨 Grundig의 株式 24.5% 取得, 다시 1983년 12월의 Grundig 買入계획의 발표이다.

Grundig 買入은 西獨聯邦企業廳의 認可를 얻을 필요가 있으나 이것이 실현되면 Philips는 G.E(美國)에 다음가는 世界第2位の 巨大메이커로 탈바꿈하게 된다.

Philips는 Grundig외에 西獨 Loewe Opta를 系列下에 두고 있으며(株式 15% 取得) 또한 歐洲諸國에 광범위하게 기업진출을 꾀하는 등 歐洲 家電業界에 巨大한 勢力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英國,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 등 歐洲主要國은 물론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진출하고 있다.

더우기 Philips가 投資하고 있는 Grundig가 西獨의 TFR에 投資하려는 계획이 잠시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② Thomson의 資本系列化 動向

프랑스의 Thomson은 미테랑政權의 탄생(1981. 5)에 따라 현재 國有化되고 있으나 同社의 歐洲에 있어서의 資本系列化에 대한 움직임은 극히 의욕적이다.

최근의 사례로는 1982년11월 Philips系의 西獨 Grundig의 株式 75.5%를 取得하는 趣意書에 調印할 것이라는 사건을 들 수 있다.

歐洲 巨大家電메이커의 聯合體 탄생과 연결되는 Thomson의 이같은 大構想은 西獨聯邦企業廳의 認可를 얻지 못해 실현을 보지 못했다.

Grundig의 買入에 실패한 Thomson이 겨냥한 次善策은 1983년 3월의 西獨第2의 家電메이커인 TFR의 買入(株式 75% 取得)이다.

西獨聯邦企業廳이 이같은 計劃을 認定하므로써 Thomson의 企業戰略은 실현케 되었다. 또한 Thomson이 과거 西獨에 있어서 이미 復數의 유력한 家電메이커를 손에 넣고 있다는 것은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1979년의 Philips의 Grundig의 投資에 呼應이라도 하듯 同年에 Nordmnde를, 1980년에 SABA를 그리고 1982년에는 Dual을 각각 買入하는데 成功했기 때문이다. (각각 100% Thomson 資本)

Thomson은 최근 거의 1년에 1개社 베이스로 西獨家電메이커를 買入한 것으로 된다.

이 결과 Thomson의 西獨에 있어서의 家電製品市場에서의 Share는 西獨의 日刊經濟誌 Handelsblatt(1983. 9. 5)에 의하면 VTR22%, 비디오 카메라 약 40%, 컬러TV 약 25%, 레코드 플레이어 약 30%, 카세트 레코더 15%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歐洲家電業界는 Philips 및 Thomson의 2大勢力의 支配下에 있어 이 兩大勢力이 어떤 때에는 協力관계를 모색하고 어떤 때에는 對峙하는 등 극히 戰略的인

企業 행동을 展開하고 있다.

前述한 Thomson에 의한 Grundig買入劇, 또는 1983년10월에 전해졌던 Philips/Grundig/Thomson에 의한 V2000의 共同生産計劃은 이같은 合從連衡의 한 측면을 나타낸 경우라 할수 있을 것이다.

2. 歐洲 巨大家電 資本의 對日行動

Philips 및 Thomson의 歐洲家電業界에 있어 支配의 位置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歐洲巨大家電資本이 日·歐 電子製品 通商마찰에 여하히 작용하고 있는 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2大資本의 對日 행동을 認識한다는 것은 日本業界가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家電製品의 日·歐通商마찰을 尖端기술 제품인 VTR 및 CD플레이어를 중심으로 Philips에 關連되는 것으로 ① 오스트리아의 對日 VTR輸入규제문제, ② 日本製 VTR의 덤핑제소 문제, ③ CD플레이어의 EC共通輸入관세인상문제, 또한 Thomson에 있어서는 프랑스政府의 對日 電子政策을 통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1) 오스트리아의 對日 VTR輸入規制問題

오스트리아政府는 1981년에서부터 VTR의 輸入규제조치를 도입했으나 對日 輸入에 대한 推移는 다음과 같다.

- ① 1981. 2. 15~82. 2. 14 8,500대
- ② 1982. 2. 15~83. 2. 14 11,000대
- ③ 1983. 2. 15~84. 2. 14 14,000대

(1984. 2. 15이후에 대해서는 22,000대 弱으로 하는 案이 있어 政府에서 目下검토 중이라한다)

오스트리아 政府는 輸入규제조치를 도입하는 主要이유로 지금까지의 對日 貿易不均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輸入규제의 實시에 Philips(同社는 오스트리아에 VTR主力工場이 있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공언한 사실로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1980년 10월 1일 Die Press가 오스트리아 Philips의 Lap社長의 發言(日本의 輸出

에 대해 政府에 의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필요성은 오스트리아에서 오디오機器, VTR生産工場을 갖고 있으며 日本의 진출과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Philips社에 있어서는 특히 긴급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聯邦經濟會議所는 同國 政府에 대해 VTR의 輸入규제에 대한 陳情書를 제출하고 있다. 그 산하의 라디오·電機組合에서의 陳情決議에서 Philips가 主導權을 잡고 있었으며 오스트리아 政府도 Philips로부터 壓力이 있었다는 것은 否定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VTR 輸入總量에서 차지하는 對日輸入량의 比率은 매우 컸으므로 이것은 實情의 對日 差別輸入규제조치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며 Philips의 EC에 있어서의 VTR 輸入封鎖를 위한 前哨戰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日本製 VTR의 덤핑提訴問題

Association of Firms With Common Interest in Video 2000은 IREICO(International Relations Consulting Company S. P. R. I)의 이름으로 1982년12월에 EC委員會에 대해 日本製 VTR의 輸入에 관한 덤핑제소를 제기, 이를 受理한 EC委員會는 同年 12월24일에 이 문제를 正식으로 조사한다는 趣旨의 官報告示를 했다.

提訴狀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극히 反目的인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① 日本메이커는 歐洲市場에서 V2000을 몰아내기 위해 덤핑功勢를 취했다.

② 이것은 日本의 政府 및 産業界에 의해 支持를 얻어 옹호되고 있는 것으로 分명한 日本의 國家戰略(Japanese national strategy)이다.

③ 日本은 덤핑에 의해 EC市場으로부터 EC産業을 排除하려는 惡劣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上記와 같은 主張이 극히 恣意的이며 實情에 反하는 것으로 日本메이커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덤핑提訴사건은 日/EC閣僚級協議(1983.

2. 12 日本東京에서 개최)에 있어서 日本측이 EC委員會(배후에는 歐洲業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요구를 부득이 받아 들여

① 最低 輸出價格制度의 도입과 병행하여

② 1983년부터 3개년間に 걸친 輸出 數量의 自肅措置를 강구할 것을 약속한 결과 同年 3월

18일에는 提訴者가 제소를 取下, 이것을 受理한 EC委員會가 3월31일에 調査進行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官報告示를 하므로써 매듭짓게 되었다.

前述한 Association of Firms With Common Interest in Video 2000은 Philips 및 Philips가 投資하고 있는 Grundig가 組織한 Informal Association이지만 이것을 보더라도 EC委員會에 대한 의도적인 關係關係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EC 베이스로 본격적인 對日 VTR 마찰이 발생한 최초의 케이스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바로 前哨戰인 것이다. 더우기 이 덤핑 提訴는 Bang and Olufsen, ITT, Körting, Loewe Opta, Luxor, Metz, Uher, Siemens, Zanussi에 의해 Support되어 있었다는 것을 附記해둔다.

(3) CD 플레이어의 EC 共通輸入關稅 引上問題

EC委員會는 日本政府의 거든되는 抗議, 産業協力에 대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1983년 12월 14일자 官報에서 CD (Compact Disc) Player의 EC 共通輸入關稅率을 1984년 1월 1일을 기해 지금까지의 9.5%에서 19.0%로 크게 인상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告示했다.

이것은 1983년 10월에 개최된 EC 外相 理事會에서는 西獨 및 덴마크가 로마條約(28條 全會一致)의 적용을 주장, 결론을 얻지 못했으나 11월의 同理事會에서 로마條約 113條(特定多數決)를 적용하여 輸入關稅率 引上決定을 받아 들인 것이다.

① Player는 DAD (Digital Audio Disc) Player 방식으로 애초부터 1979년에 Philips와 Sony가 제휴 共同開發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日·歐産業協力の 産物이다.

그러나 Philips는 日本의 對歐輸出 開始 이전인 1982년 5월의 EACEM (歐洲家電製品聯盟, European Association of Consumer Electronics Manufactures) 會議에서 CD Player 輸入關稅率의 19.0%引上을 EC委員會를 움직이게 하는 絶의에 主導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同年 7월에는 벨기에 및 네델란드政府에 대해 CD Player의 輸入關稅率 引上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Philips의 요구를 받은 兩國政府는 EC 113條委員會에 대해 가트28條 交渉(代償交渉을 規定

한 것)을 바탕으로 CD Player의 輸入關稅率引上을 제안하였으며 이것을 보장이라도 하려는 듯 EC委員會는 1983년 2월에 가트事務局에 이같은 취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同月 下旬에는 日本政府에 대해 가트28條의 交渉을 요구해 왔다.

이것들은 Philips가 이 문제에 어느만큼 關係되어 있었는가를 말해 주는 것과 동시에 EC委員會(Philips)의 對日豫防의 보호주의가 主要한 최초의 케이스로 注目될만한 일이다.

한편 2大勢力중의 하나인 프랑스의 Thomson에 있어서는 同社가 企業國有化法의 公布(1982. 2)에 따라 國有化된 것이므로 Thomson의 戰略은 즉, 프랑스政府의 政策이라는 觀點에서 프랑스政府의 對日 電子製品에 대한 대표적인 政策의 경우를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프랑스政府는 家電製品 가운데서 라디오(廣義의 라디오로 스테레오 세트, 라디오附테이프 레코더, HiFi用 튜너, HiFi用 레시버 등을 포함) 및 TV에 대해 對日 輸入규제조치를 일관하여 施行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1983년의 對日 輸入규모는 라디오 19萬대, TV는 8萬 4,000대에 불과했다.

日本政府는 프랑스政府에 대해 이들 電子製品의 自由化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나 프랑스政府는 日本과 프랑스間의 貿易不均衡, 또한 對外通商交渉權의 EC委員會에의 移讓을 主된 이유로 自由化 實施뿐 아니라 輸入규모의 增加도 이행치 않고 1982년에는 逆으로 TV의 對日 輸入규모를 일방적으로 4천대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프랑스政府는 이러한 輸入制限의 實效를 얻기 위해 EC委員會에 대해 누차 로마條約 115條(域內自由流通의 制限條項)의 적용신청을 하여 同條項을 發動하고 있는 것이 實態이다.

또한 프랑스政府가 1982년 10월 22일자 官報에서 VTR의 輸入通關을 內陸部の 포와치에에 集中하고 있다는 내용의 告示를 한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오스트리아의 VTR 輸入制限실시와 같이 프랑스의 輸入總量에서 차지하는 對日 VTR 輸入數量的 比重이 높는데 비추어 이 조치가 對日 制限效果를 의도한 나머지 채택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조치는 前述한 1983년 2월의 日/EC 閣僚 級協議에 있어서의 合意에 立脚하여 해제되었으나 앞에서의 對外通商交涉權의 EC移讓에 대한 說明과는 현저하게 상이하야 4월28일에 이르기까지 실현을 보지 못했다.

이와 같이 輸入通關을 크게 지연시킨 소위 포와치에사건은 일단 해결을 보았으나 프랑스政府는 이를 전후하여 VTR의 事前輸入承認制度를 도입, 이것을 恣意的으로 이용하여 1983년에 이어 1984년에 있어서도 사실상 VTR의 輸入制限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日/EC政府間交涉에 있어서는 輸出數量의 國別割當으로 한다는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되었으나 프랑스政府는 1983년 40萬대 정도, 1984년에도 完製品 및 準完製品으로 43萬대 정도의 對日 輸入규모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기 때문이다.

1983년 1월~11월까지의 있어서의 日本의 對 프랑스 VTR輸出數量은 前年同期比 77% 감소된 17萬대에 불과했던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VTR登錄稅의 부과(1983. 1. 471 프랑/1台). 高率VAT(33%) 등의 영향 탓으로만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歐洲의 2大資本이 聯合한 構想이 그 배경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EC에 있어서는 현재 ESPRIT(歐洲情報産業開發計劃 European Strategic Reserch Programme in Information Technology)가 推進중 에 있다.

이것은 新情報處理技術, 次世代 鋳, 새로운 言語, Office Automation 및 自動化 生産분야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프랑스政府는 補助金지급 대상에서 非歐洲系 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프랑스 政府의 電子製品에 대한 對外通商政策의 한 측면을 보아 왔으나 이것을 통해서도 프랑스政府가 어느 만큼 自國의 電子産業에 대해 지나친 保護政策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Thomson은 프랑스政府의 電子産業 보호정책 아래에서 歐洲市場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다.

3. 日本業界의 對應

지금까지는 歐洲에 있어서의 家電業界의 再編成 動向과 함께 歐洲 2大資本의 對日 行동을 보아 왔다.

그러면 이처럼 각양각색의 움직임 속에서 日本의 家電業界가 여하히 對應해 왔는가, 그 실태를 ① 投資交流, ② 技術交流, ③ 業務 제휴로 나누어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投資交流

投資交流에서는 日本家電業界의 對歐 企業 진출의 動向을 主力家電製品인 컬러TV 및 VTR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컬러TV에 있어서는 國際通用語인 英語 使用 圈인 영국에의 企業진출이 두드러지다.

操業開始時期別로 보면 Sony(74.6), 松下(76.10)가 빠른 편이고 연이어 日立(79.1合作), 三菱(79.10), 東芝(79. Rank와의 合作해소 81.3) 그리고 三洋(82.7) 등이 있다.

英國 이외의 EC지역에서는 西獨의 Sony(Sony WEGA, 75.10)에 불과하다.

한편 VTR에 있어서는 日本빅터에 의한 3社 合作·J2T 즉 英國Thorn EMI와의 J2T Video(82.5 西獨 Berlin), 松下(65% 出資)와 Robert Bosch(35% 出資)와의 MB Video(83.1 西獨), Sony WEGA(82.5 西獨), 日立(83.10 西獨), 三菱(83.8 英國), 東芝(83.11 發表 西獨), 三洋(83.9 英國, 84.1 西獨), 赤井(프랑스) 등이 있다.

더우기 上記 2개 품목이외에 HiFi 關係에서 파이오니아(74. 벨기에, 84. 프랑스合作), 아이와(80.7 英國), 赤井(83.3 프랑스) 등이 있다.

(2) 技術交流

技術交流에서는 日本家電메이커와 歐洲 메이커와의 技術제휴(기술협력)에 대한 상황을 보기로 한다.

英國에 있어서는 새프/Rediffusion(컬러TV), 日本빅터/Thorn EMI(비디오 카세트), 프랑스에서는 日立/Thomson(VTR 產生기술), 西獨에서는 Sony/BASF(비디오 카세트), 이탈리아에서는 日立/Zanussi(HiFi 關係기술) 등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松下/Philips(네델란드) 松下/Grundig(西獨) 간의 VTR에 관한 技術제휴이다.

(3) 業務提携

업무제휴로는 VTR의 OEM거래 - 供給先에 대해 살펴 보면 英國의 Thorn EMI(78. 6), GEC(81), Rank(79), 西獨의 TFR(78. 12), Nordmende(78. 3), SABA(77. 12), ITT(80. 11), Blaupunkt(79), 프랑스의 Thomson(78. 3), 네델란드의 Philips(81. 단 海外子會社) 등을 들 수 있으며 V2000그룹의 Bang and Olufsen(덴마크)와도 84년부터 OEM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의 품목으로 컬러TV, HiFi 관련기기에 대해 보면 Thorn EMI(英國), Thomson(프랑스), Grundig, Körting, ITT, Metz, Nordmende, SABA, Dual, Blaupunkt(西獨), Philips(네델란드)에 대해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CD Player에 있어서는 Siemens, Nordmende, SABA, Dual 등 歐洲의 주요家電메이커의 대부분에게 日本家電메이커에서 OEM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日本의 家電메이커들은 資本, 技術 및 去來관계에 있어 歐洲家電産業에 깊이 관련되어 日本에 대한 輸入制限이나 輸入 규제요구 등의 격변하는 정세에 對應해 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日本家電業界의 上記와 같은 對應이 日·歐電子製 通商마찰 해결에 있어 奏效한 것도 있으나 逆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도 있다.

前者의 대표적인 예로 ① Philips 및 Grundig

에 대한 松下의 VTR技術協力 施行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V2000이탈(84년부터 Philips 및 Grundig는 日本方式 VTR生産을 개시할 것으로 예정, 또한 B&O는 V2000그룹으로부터 離脫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② 日本빅터의 Thomson에 대한 VTR技術협력, J2T 계획의 실시에 따른 日·歐家電聯合의 成立과 對日壓力의 輕減化(당초의 Thomson참가에 의한 J3T 合作계획은 同社의 國有化에 따른 이탈로 실현을 보지 못했으나 Thomson의 TFR買入으로 실질적으로 J3T가 탄생케 되었다.) 등이 있으며 後者の 典型的인 경우에는 日·歐産業協力の 產物인 CD Player의 EC共通輸入關稅率의 大幅的인 引上實施를 들 수 있다.

歐洲市場에 있어서 Philips 및 Thomson의 2大資本의 주도권쟁탈전과 그것을 반영하는 歐洲家電業界에 있어서의 合從連衡의 매우 복잡한 움직임, 또한 그 延長線에 있어서는 때로는 對日輸入制限이 표면화되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CD Player와 같은 경우가 앞으로 再現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日本家電業界로서는 對歐기업진출(특히 合作형태가 바람직하다), 技術協力, 그리고 OEM去來의 施行등 소위 産業協力を 위협을 동반하면서도 추진한다. 다시 말하면 日·歐관계의 앞으로의 問題展開에 대해 日本家電業界는 한걸음 앞서서 對應해 나가는 姿勢가 점차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